



교육칼럼



박주정 한국교원대학교 연구교수

-후배들 까불면 연락 주세요
나는 재직학교에서 작음하지 못했다. 반 아이들과 노는 것도 싫었고, 학교가 싫었다.
름에 갇혀 생활해야 하는 것도, 지켜야 할 규칙이 너무 많은 것도 다 싫어서 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런 도중 담임선생님을 통해 용연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솔직히 처음 용연학교에 갔을 때 '이게 뭐야? 학교 맞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를 차가운 시선으로 보지 않고, 차별 없이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신기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

니고 싶다는 말은 자주 한다. 그만큼 나와 내 친구들에게 뜻깊은 추억의 학교이다. 나는 이 학교에서 정말 많은 추억을 선물로 받았고, 선생님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다.
22살이 된 나는 대학에 다니지는 않지만,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취업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내 할 일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중이다. 지금 쇼핑물 사업을 비롯해 직업을 3개 가지고 있다. 난 정말 늦은 줄 알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용연학교 선생님들이 알려주셨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

용연학교에 띄우는 소식-2

행다운 여행을 해보았고, 학교 대표 역할도 해보고, 친찬을 받고, 예뻐까지 들뜬 받았다.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받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과 여러 가지 체험들이 나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었고 선생님들을 실랑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다. 덕분에 나는 손을 댄 공부도 하기 시작했고, 어른들에게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내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물론 용연학교에 다니면서도 크고 작은 사고를 쳐서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선생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그 또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다.
중학교 시절 나의 걸모습은 맑았지만 마음속은 어두웠고 어려웠다. 그런 내가 마음잡고 열심히 살게 된 게 용연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였던 것 같다.
6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용연학교를 선택한 건 내가 해왔던 많은 일 중 제일 잘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용연학교에 다니지 않았더라면 분명 중학교 졸업은커녕 아무 일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가끔 친구들과 다시 용연학교에 다

는 걸 배웠다.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고, 그런 내가 기쁘고 대견하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남들이 아무리 문제 학교라고 불러도 나는 지금도 용연학교 나온 걸 후회하지 않는다.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용연학교에 다니는 모든 후배들이 꼭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아직 늦은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선생님들! 여기 다니는 후배들이 까불면 연락 주세요. 책임지고 꼭 잡아놓겠습니다.
저희 다닐 때 생각해봐도 진짜 마음고생 심하실 텐데 하루하루 사고치고 문제 많은 애들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다 저희처럼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자기 할 일 하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2017. 12.
박재영 올림(2010~11년 수료생)

위 무첨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설교의 맛을 내는 예화5

[교남, 역경]

악마들의 가장 값비싼 무기
유대인들의 옛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다. 한 악마가 죽을 때가 되어 자기가 사용해 왔던 무기를 전시해 놓고 다른 악마들에게 무기를 팔게 되었다. 악마가 내놓은 많은 무기 중에서 아주 낡은 무기가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 무기에는 다른 것과 비교되지 않을 제일 고가의 가격이 적혀 있었다.
“도대체 이 낡고 오래 된 것에 왜 이런 고가를 붙였습니까?” 한 악마가 물었다.
이 노련한 악마 대답했다.
“너는 모른다. 이 무기가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를... 나는 이 무기로 수많은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였고 또 이 무기로 많은 크리스천들을 쓰러뜨렸다”고 하였다.
그 무기 밑에는 바로 ‘절망’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절망은 크리스천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되었던 것이다.

심화예화 (주제별 말씀묵상)_01 새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인도1

본지는 위 글을 펴낸곳과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펴낸곳 크리스천리더 / 출판기획팀 지음)

환영행사를 피한 나이팅게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렘1:8

나이팅게일은 1853년 크림아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는 부상병을 간호하고, 1만 3천 명의 호열자 환자를 치료해주었다. 그녀는 군인들로부터 싸움터의 천사, 백의의 천사라는 이름을 얻었다. 크림아 전쟁이 끝나고, 나이팅게일은 영국으로 귀국하려 하였다. 그녀의 귀국소식에 대대적인 환영준비를 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영국으로 귀국하려던 예정을 바꾸었다.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프랑스행 비행기편을 준비해 주세요.”
그녀는 1956년 8월 15일에 아무도 모르게 프랑스로 가게 되었다. 그녀가 프랑스로 가게 된 이유를 알게 된 그녀를 존경하였

다.
“역시, 아름다운 천사야!”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겸손한 마음과 생활 태도에 달려 있다.

본문의 묵상을 위한 주제어

1. 두려워하지 말라 :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2. 나와 함께 하여 : 오늘, 나의 시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3. 구원하리라 :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나의 힘으로 삼는다.

기도 : 하나님의 품에 안겨 종일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본지는 위 글을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한치호 목사 지음/선교넷)

예리한 질문 명쾌한 답변 101가지 구약 Q & A

신득일 교수 Q&A 시리즈 2_37 그리스도인의 율법 준수

율법 폐기론, 도덕법 폐기론을 잘못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613가지 율법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더 이상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은 대표적으로 무엇이며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언급된 율법은 편의상 언약법, 의식법, 정결법, 도덕법, 시민법으로 나눕니다. 기본적으로 구약의 율법과 새 언약 성도의 삶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적인 것은 이 시대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이고, 불연속적인 것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식법과 시민법, 정결법은 폐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골고다에서 모든 의식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써 그림자가 실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골2:17)
옛 언약의 제사에서 그려진 것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영원히 가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과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과 관련된 규제, 즉 씨를 섞어서 뿌리는 것이나 실을 섞어서 베를 짜는 것, 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 안식년 및 회년 규정과 이자 규정, 등과 같은 것은 지금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법과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상 숭배, 살인, 도적질, 거짓말, 간음, 동성애 같은 규정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실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식법과 정결법과 시민법이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규정의 영적인 의미, 그 정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정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즉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회년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년의 정신, 즉 이웃 사랑, 평등, 자유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현대인은 이치를 받아도 상관이 없지만 그 기본 정신은 이웃 사랑입니다.
제사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모든 악으로부터 완벽한 대속을 가져다주었고 우리는 이것을 성찬식으로 기념합니다. 구약의 의식적인 제사는 무의미하지만 그 의미는 산제사로 나타납니다. (롬12:1:히13:15~16) 우리는 감사의 산제사를 드리면서 찬양의 제물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 제사 의식의 연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후에 준비된 축제의 음식은 가난한 자와 이방인, 과부와 고아에게 혜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의 산제사를 드린다고 부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율법의 명령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같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갈3:29) 이 해석의 중요한 원리는 계시 역사의 전진입니다.

본란은 성도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신득일 지음/기독교문서선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신입(편입)생 모집(주·야간)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062)266-0153 http://gsgccc.or.kr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
동개혁총회 총회장 정시영목
사입니다. 합동개혁 총회신
학은 청교도 개혁 신학의 요
람으로 사명자들에게 철저한 보수적 신앙체제로
교육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 할 수 있
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여러분!
본인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든
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담
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총회 신학은 년중 계
속 수업을 실시하므로 언제 든지 입학할 수 있
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정시영 박사



최고의 교수진
신학과 목회연결

모집안내 신학과 목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별	모집학과	모집정원	응시자격
신학부 (졸업후 진도사 지역)	신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목회학과(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평신도, 장로, 사명자 특별전형
신학연구원 (졸업후 목사 인수)	주·야간반	00명	신학부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모든 수업은 광주총신에서 하며 졸업 등 모든 학적관리는 본교인 서울 남한동 총신에서 주관함.
학술원	목회학과	00명	본 신학연구원 졸업자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 총회신학 광주캠퍼스
2. 원서접수 : 수시접수 (062-266-0153)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전형료 없음)

교수님을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 전공분야 및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인원 : 0명

광주총신 특별사항

- ▶ 신학부 : 4년 8학기 또는 2년 8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 ▶ 신학연구원 : 2년 4학기 또는 1년 4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 시간표 홈페이지 참조 (<http://gsgccc.or.kr>)
- ▶ 주야간반 : 매주 월/화 (주간: 오전 10시, 야간: 오후 6시) 주말반 : 매주 토요일
- ▶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 부부 학생특혜
- ▶ 최고의 교수진 / 설교전문가 / 실천목회자 양성
- ▶ 교회개혁,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
- ▶ 한교연, 한기총, 한장연, 세기총 가입 교단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광주 총회신학. 연구원장 : 임강원 목사

수시 등록 접수중

광주광역시 각화동 476-1번지 062)266-0153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교단 내 지도자양성을 위해 인준한 신학교육기관입니다.